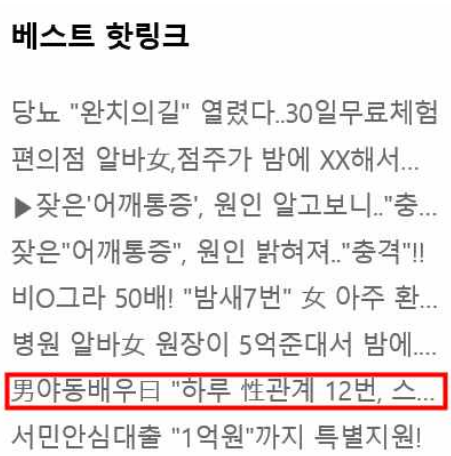
결 정

2018 - 4002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

주 문

뉴시스(newsis.com) 2017년 12월 6일자(캡처시각) 「男야동배우 曰 "하루 性관계 12번, 스...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**'주의'** 조처한다.

이 유



<12. 6. 11:54:09 캡처>
<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71206_0000168425&cid=10201>

뉴시스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을 선전하면서 제목에 야동배우 운운하였다.

'야동'은 법적·도덕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. 게다가 이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에 야동 배우에 관한 건 없다.

이는 "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"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참고: 해당사이트

<http://jdaily.co.kr/product/moa2/index.jsp?pvCtx=http%3A%2F%2Fjdaily.co.kr&prevPage=http%3A%2F%2Fjdaily.co.kr%2Fframe%2Fjad-bin.do%3FadPageCd%3DPC074&adCd=PC074&pdCd=AC1705010000002>

[단독] 중년 男, 만성 '조루, 발기부전', 핵심성분 찾아.. 학계 충격

- 남성에 특화된 홍삼엑기스, 옥타코사놀,야관문 등 핵심성분의 황금비율 찾아
- 본사단독, 최고의 효과 두가지(활력소+고환마사지기)를 동시에!
- 가격은 동일하게! 상품은 푸짐하게! 300세트 한정판매 이벤트!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

위 원 정 숭 호

장 명 국

이 동 현

장 인 철

강 희

김 영 모

박 현 갑

박 미 경